

■ 괴운(機雲) 칼럼



보왕삼매론과 인생사필(人生四必)

권 해 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속담에 ‘겉은 사람은 나귀 탄 사람을 부러워하고, 나귀 탄 사람은 말 탄 사람을 부러워하며, 말 탄 사람은 건마 잡힌 사람이 부럽다.’고 했다.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병이 들 어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오늘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음 가짐과 지켜야 할 필수항목인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과 인생4필(人生四必)에 대하여 알아본다. 먼저 보왕삼매론 은 중국 명나라 때 묘협(妙峽)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교한 내용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10가지 금언(金言)으로 되어 있다.

(1)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究身不求無病).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니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는 말도 그 맥락이다. (2) 세상살이에 어려운 일이 없길 바라지 마라(處世不求無難). (3)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가 없길 바라지 마라(究心不求無障). (4) 수행에 마(魔)가 없기를 바라지 마라(立行不求無魔). (5) 일을 도모함에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謀事不求易成).

(6) 사람을 사귀에 있어 이롭기만 바라지 마라(交情不求益我). (7)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마라(於人不求順適). (8) 덕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施德不求望報). (9)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見利不求露分). (10)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해명하려 하지 마라(被抑不求申明). 이상 10가지는 우리 인생살이에서 꼭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처세술이며, 평소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귀감이 되는 좋은 내용이다. 중국 속담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란 말이 있다고 한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는 한겨울 새벽시장에서 손발을 얼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될 것임

니다.

다음은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려면 독불장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어울림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항목인 인생사필(人生四必)이 있다.

첫 번째는 신의(信義)입니다. 약속을 가버이 여겨, 식언(食言)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넘기려 하는데 신의가 없으면 세상살이에서 낙인이 찍혀 철저히 외면당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의(禮義)입니다. 예의의 핵심은 상호 존중인데, 거친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어서 사귀지 말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사고(思考)의 건전성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이 아니라 세상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누구도 가까이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人情)입니다. 인정은 인성의 나침반으로 사람을 사람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향기가 없는 꽃은 벌 나비가 외면하듯이 인정이라는 인향(人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외면을 받게 마련이다.

이상 4가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키며 살아야 누구와도 어울리며 함께 할 수가 있을 ‘인생 4필’이다. 사람이 신뢰를 쌓아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늘 한결 같은 마음이라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다. 우리 안동 권문들도 항상 보왕삼매론과 인생 4필을 기본으로 지키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응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 권순공의 온고지신溫故知新

〈춘향전(春香傳)〉에서 ‘신분해방’을 읽다



권순공(세명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어느 나라나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애독되는, 진정한 의미의 고전(古典)이 있다. 그 목록의 맨 처음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 중국에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가 있고, 일본에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가 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춘향전(春香傳)〉이 있다. 18·9세기에 판소리 〈춘향가〉가 12마당 중 가장 인기를 끌었고, 고전소설로도 200종이 넘는 이본(異本)을 파생시켰다. 게다가 1923년 〈만고열녀 춘향전〉이라는 최초의 한국영화로 제작된 뒤 무려 스무 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졌다. 근대문학이 확립된 1920~30년대에도 〈춘향전〉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 〈춘향전〉이 어찌해서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이 됐을까? 그것은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이 다른 청춘남녀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수난의 과정을 거쳐 다시 행복한 재회에 이르기까지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틀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자, 그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영혼과 육신이 만나는 아름다운 진경(眞景)

처음 남원부사 아들인 이몽룡이 그네 뛰는 춘향이를 보았을 때, 그는 춘향을 기생의 딸이라 잠깐 즐기는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춘향이의 정체를 물어보니 방자가 “다른 무엇이 아니오라 이 골 기생 월매 딸 춘향이란 계집아이로소이다.” 하자 “들은 즉 기생의 딸이라니 급히 가 불러 오라”고 했다. 기생은 ‘노류장화(路柳牆花)’여서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꺾을 수 있는 존재였고 이몽룡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 초대를 춘향은 매물차게 거절한다. “네가 지금 시사(時仕; 현직 관가)가 아닌데 왜 오라 가라 하느냐?”고 반문한다. 실상 춘향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여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춘향의 본 모습이다. 결국 사또 자체 이몽룡은 “네가 너를 기생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 한다기로 청하노라.”고 궤도를 수정해 ‘글 벼’으로 초청하기에 이른다. 당연히 아름다운 청춘 남녀는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랑은 상대방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상대방이 ‘지인지 감(知人之鑑)’의 상대, 말하자면 필(feel)이 통하는 상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신분의 장애가 가로 놓여 있고, 그 간극은 당시의 통념상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그 날 밤 이몽룡은 춘향의 집을 방문해 서로가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불망기(不忘記)’까지 적어준다. 말하자면 ‘혼인서약서’가 되는 셈인데 당시의 관습으로 그것이 사회적 구속력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절차로 적어도 둘 사이에는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날 밤에 이루어졌던 춘향과 이몽룡의 질탕한 ‘사랑놀이’를 두고 신소설 작가였던 이해조(李海潮, 1869~1927)는 〈자유종(自由鐘)〉(1910)에서 ‘유평교과서’라고 비난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영혼의 만남이 있는 그들의 행위는 너무도 아름답다. 사랑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젊은 남녀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 되어 주저하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이 한 번에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춘향전〉의 사랑은 영혼과 육신이 만나서 펼쳐지는 한없이 아름다운 진경(眞景)이 된 것이다.

! 양반의 노리개가 아닌 주체적 여성으로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자. 상호 신뢰와 애정에 의해 감추어져 있던 신분적 갈등이 현실의 고난으로 드러난 것은 이몽룡과 이별하고 변화도가 남원부사로 내려오면서부터다. 남원에 내려 온 변학도는 만사를 제쳐놓고 ‘기생점고’부터 하고 춘향이를 찾는다. 어떤 이본에 보면 기안(妓案)에 없으니 명부에 집어넣고 데려 오라고까지 한다. 춘향이를 대하는 이몽룡과 변학도는 이렇게 태도부터 다르다.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이몽룡과 우격다짐으로 편법을 써서 춘향이를 끌어오는 변학도, 바로 이 변별점이 그토록 강하게 수정을 거부한 근거가 된다.

변학도는 춘향을 인격체가 아닌 양반의 ‘노리개’로 보고 수정을 강요한 것이다. 그러기에 춘향의 수정거부는 이몽룡을 위해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바로 이런 무자비한 폭압에 대한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변학도가 기생이 무슨 정절이 있냐고 조롱하자, 춘향은 “충불사이군(忠不事二君)이요 열불경이부절(烈不更二夫節)을 본받고자 하옵는데 수자 분부 이려하니 생불여사(生不如死)이옵고 열불경이부(烈不更二夫)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 충효열녀 상하 있소?” 라며 대꾸한다.

왜 춘향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변학도의 수정을 거부했을까?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춘향이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거지꼴로 내려온 이몽룡을 보고 살아날 희망도 포기하고 사후 처리까지 부탁한다. 변학도는 이방을 보내 “네가 수정을 들면 관가의 창고 돈이 다 네 돈이 될” 것이라고 회유하기도 하고, 어머니인 월매는 사또도 자존심이 있으니 “이번만은 눈 질끈 감고 수정 한 번 들라”고 권한다. 하지만 춘향은 독하게 마음먹고 유혹을 뿌리친다. 양반의 노리개가 되어 구차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죽겠다는 것이다. 춘향이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평범한 지어미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반의 노리개가 돼야 하는 신분적 질곡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이 신분적 질곡에 당당히 맞섰던 여자가 바로 춘향이다.

〈춘향전〉은 제목 그대로 춘향의 이야기다. 이 때문에 기생 춘향이는 양반 신분인 이몽룡의 아내가 되어 ‘신분상승’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천민인 기생도 한 인격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신분해방’을 실현시킨 것이다. 그러기에 〈춘향전〉은 한국판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라 천민인 기생이 권력에 맞서는 처절한 투쟁사로 읽혀야 하는 것이다. 부유함을 쫓는 요즘 세대를 보며 ‘인간됨’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 이달의 시

산다는 것이

/권순채

산다는 것이
참 쉽고도 어렵다

어릴 때는
어렵게 어렵게
지나왔는데

내 인생
어디에서도
편안한 때가 없었다

늙어 갈수록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치고 뿌리지면서
지내왔는데
건강이 제일 문제이더라

서울지역종친회 유적지 참배

회원 여러분!

뿌리공원은 대한민국 약 300여 개 성씨들의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여러모로 여건상 개인적으로는 방문하기가 어려운 곳이므로 주위 종친분들을 권유하여 함께 참여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9월 14일, 일요일 07시 20분
- ♣ 장 소 : 대전광역시 뿌리공원(안동권씨 조형물) 참배
- ♣ 교 통 : 전철 2.4호선 사당역 6번 출구.

우리은행 옆 골목 관광버스 대기

♣연락처:

- ▶ 회 장 권영복 010-2456-6865 ▶ 사무국장 권순휘 010-3797-1874
- ▶ 총 무 권지은 010-5413-0287

2025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지역종친회 회장 권영복

서울산악회 제353차 정기산행

회원 여러분!

서울산악회 제353차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5년 9월 21일(일) 10시(시간엄수)
- ♣ 집합장소 : 수락산역 3번 출구
- ♣ 산 행 지 : 수락산 둘레길
- ♣ 준 비 물 : 도시락, 간식,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정찬: 010-5392-6222
- 등반대장 권오윤: 010-9027-6179
- 총 무 권혁구: 010-2240-4242

2025년 9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정찬